

<표> '11년 3분기~'12년 3분기 오락·문화 소비지출 변동

(단위 : 천원, %)

구분	2011년		2012년			2011년		2012년			12년2분기 (전분기 대비)	12년3분기 (전분기 대비)
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3분기 구성비	4분기 구성비	1분기 구성비	2분기 구성비	3분기 구성비		
소비 지출	2,443.6 (6.1)	2,379.6 (-2.6)	2,568.3 (7.9)	2,386.1 (-7.1)	2,467.1 (3.4)	100	100	100	100	100	3.6	1.0
실질	2,333.9 (5.0)	2,268.4 (-2.8)	2,425.2 (6.9)	2,248.9 (-7.3)	2,318.7 (3.1)	-	-	-	-	-	1.1	-0.7
식품 및 비주류음료	367.4 (14.6)	346.7 (-5.6)	342.1 (-1.3)	326.4 (-4.6)	382.8 (17.3)	15.0	14.6	13.3	13.7	15.5	1.8	4.2
주류 및 담배	30.3 (14.2)	28.1 (-7.4)	27.5 (-2.2)	28.0 (1.9)	29.9 (6.8)	1.2	1.2	1.1	1.2	1.2	5.3	-1.5
의류 및 신발	129.1 (-17.2)	193.0 (49.5)	157.7 (-18.3)	170.4 (8.0)	131.8 (-22.7)	5.3	8.1	6.1	7.1	5.3	9.3	2.1
주거 및 수도광열	200.7 (-16.8)	231.9 (15.5)	316.1 (36.3)	244.9 (-22.5)	211.9 (-13.5)	8.2	9.7	12.3	10.3	8.6	1.6	5.6
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	92.1 (2.3)	95.0 (3.1)	89.6 (-5.6)	90.2 (0.7)	98.0 (8.5)	3.8	4.0	3.5	3.8	4.0	0.2	6.3
보 건	158.8 (7.1)	158.8 (0.0)	166.6 (4.9)	158.7 (-4.7)	153.4 (-3.4)	6.5	6.7	6.5	6.7	6.2	7.0	-3.5
교 통	308.3 (2.6)	289.2 (-6.2)	288.7 (-0.2)	308.5 (6.9)	297.9 (-3.4)	12.6	12.2	11.2	12.9	12.1	2.6	-3.4
통 신	144.2 (2.1)	147.4 (2.2)	148.5 (0.7)	154.4 (4.0)	155.3 (0.6)	5.9	6.2	5.8	6.5	6.3	9.3	7.7
<b>오락·문화</b>	<b>137.5 (9.2)</b>	<b>121.1 (-11.9)</b>	<b>138.8 (14.5)</b>	<b>134.6 (-3.0)</b>	<b>144.0 (7.0)</b>	<b>5.6</b>	<b>5.1</b>	<b>5.4</b>	<b>5.6</b>	<b>5.8</b>	<b>6.8</b>	<b>4.8</b>
교 육	351.3 (51.8)	231.2 (-34.2)	364.4 (57.6)	232.0 (-36.4)	329.9 (42.2)	14.4	9.7	14.2	9.7	13.4	0.2	-6.1
음식·숙박	313.0 (3.8)	306.7 (-2.0)	296.3 (-3.4)	320.3 (8.1)	322.5 (0.7)	12.8	12.9	11.5	13.4	13.1	6.2	3.0
기타 상품 및 서비스	210.8 (-4.3)	230.5 (9.3)	231.8 (0.6)	217.7 (-6.1)	209.8 (-3.6)	8.6	9.7	9.0	9.1	8.5	-1.2	-0.5

출처 : 통계청(2012), '11년 3분기~'12년 3분기 가계동향

- '12년 3분기 월평균 오락·문화지출은 약 14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.8% 증가. '11년 1분기 이후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'12년 3분기는 전분기대비 7.0% 상승
  - '12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중 콘텐츠산업 영역인 오락문화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6천 5백원 증가
  - 오락·문화 소비지출은 '08년 4분기에 9만 7천원의 수준을 기록한 후 전반적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전분기대비는 '10년 1분기 이후

## 등락 기조

※ '10년 1분기부터 '12년 2분기까지 전분기대비 오락문화 소비지출 증감률은 각각 22.5%, -9.0%, 9.7%, -5.2%, 5.5%, -3.9%, 9.2%, -11.9%, 14.5%, -3.0%로 등락세. 오락문화 소비지출 증감률은 전체 소비지출 증감 등락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, 오락문화 소비지출의 변동폭은 '11년 3분기 이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

※ '12년 3분기 오락·문화 소비지출과 함께 주류·담배, 보건, 교통, 교육, 기타 상품·서비스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지출이 전년동기대비 증가. 특히 오락·문화 소비지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보다 높은 것은 주거 및 수도광열,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, 통신 소비지출 등 3개 부문이고 전년동기대비 각각 5.6%, 6.3%, 7.7% 증가

- 오락·문화 소비지출은 '09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및 상승의 영향으로 '12년 1분기까지 소비지출 증가가 이어졌으나, 유럽재정위기 등 불확실성 해소 지연 및 미국, 중국 등 국내 주요 교역국가들의 거시경제 회복 정체 등 대외요인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 증대 등 국내 경기 정체 우려 확대를 전반적인 국내 수요 증대에 심리적 및 실질적 악영향 예상. '12년 4분기 이후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거시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나,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해소가 미흡할 경우 국내 경기 회복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실질소득 감소 등 소비지출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. 이에 비해 오락·문화 소비지출은 콘텐츠 수요증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, 특히 스마트 콘텐츠 등 일부 경쟁력 확보 분야는 수요 증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 예상